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659>

JCCT 2024-5-74

제르멘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 연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중심으로

A Study of Germaine Tailleferre's Piano Chamber Music: Focusing on <Sonata pour deux pianos>

김희정*

Hee Jung Kim*

요약 제르멘 타유페르(Germaine Tailleferre)는 프랑스 6인조(Les Six)에 속한 유일한 여성 작곡가로서 약 70여 년의 작곡활동 기간 중 다수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들은 전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에 대한 전체 목록을 소개하고 각각의 작품을 연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4년에 작곡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형식, 화성, 선율 등의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그녀의 음악 어법과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당시 파리의 카페, 뮤직홀 등에서 유행하던 살롱 양식의 가벼운 음악적 언어를 바탕으로 인상주의, 신고전주의 음악 등의 다양한 어법들이 다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가 타유페르의 음악 어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새로운 20세기 피아노 실내악 문헌의 발굴, 확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제르멘 타유페르, 피아노 실내악 작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bstract Germaine Tailleferre is the only woman composer among the French group of six composers known as "Les Six." In her 70-year career, she has left behind numerous chamber music pieces for the piano. Although her chamber music works constitute a significant portion of her overall compositions, research focusing on her piano chamber music pieces is lacking. Therefore, this study introduces a comprehensive list of Tailleferre's chamber music pieces and categorizes each piece according to its performing level of difficulty. Additionally,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her <Sonata for Two Pianos>, composed in 197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er musical style and artistic world, particularly regarding form, harmony, and melody. <Sonata for Two Pianos>, rooted in the unpretentious and light musical language characteristic of the salon style popular in Parisian cafes and music halls at the time, can be seen as a multi-layered work reflecting various musical languages such as Impressionism, and Neo-classicism.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ailleferre's musical world and aid in discovering and expanding new literature on 20th-century piano chamber music.

Key words : Germaine Tailleferre, Piano Chamber Music, <Sonata for Two Pianos>

*정회원, 명지대학교 예술학부 조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0일
게재확정일: 2024년 1월 1일

Received: March 5, 2024 / Revised: April 10, 2024

Accepted: May 1, 2024

*Corresponding Author: hjkim0117@mju.ac.kr
Dept. of Arts, Myongji University, Korea

I. 서론

제르맹 타유페르(G. Tailleferre, 1892-1983)는 루이 뒤레(L. Durey, 1888-1979), 다리우스 미요 (D. Milhaud, 1892-1974), 아르튀르 오네게르 (A. Honegger, 1892-1955), 조르주 오리크 (G. Auric, 1899-1983), 프랑시스 풀랑크(F. Poulenc, 1899-1963)와 함께 구성된 프랑스 6인조의 유일한 여성 작곡가이다. 프랑스 6인조는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장 콕토(J. Cocteau, 1889-1963)를 음악적 대변인으로, 작곡가 에릭 사티(E. Satie, 1866-1925)를 음악적 스승으로 하여 바그너주의와 인상주의로부터 독자적으로 자국 음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사티의 음악 속에 내재된 단순 명료함, 대중 음악적 요소, 일상의 음악(Music for Everyday)을 통해 프랑스 음악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1]. 특히 신고전주의 음악(Neoclassicism)은 음악에서 객관성과 명료함을 추구함에 있어 20세기 초반 프랑스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스트라빈스키(I. Stravinsky, 1882-1971)로 대표되는 신고전주의는 그들에게 중요한 음악적 대안으로 모색되었다[2].

프랑스 6인조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룬 바 있으며 특히 풀랑, 미요, 오네게르 세 작곡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타유페르의 음악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그의 피아노 음악에 대한 선행 연구는 프랑스 6인조의 독주곡 모음집 <6인조 앨범>(Album des Six, 1920)과 1917-1925년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을 중심으로 한 논문[3], 타유페르의 전기와 함께 피아노 독주곡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논문[4], 프랑스 6인조의 피아노 작품을 큐비즘, 미래주의, 다다이즘의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5] 등을 들 수 있다.

타유페르의 실내악 작품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Germaine Tailleferre(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로[6], 본 논문의 주제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 대한 작곡 배경과 간략한 악곡 분석도 해당 논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만 독립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작품을 심도있게 다루어 봄으로써 타유페르의 음악 어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문헌 중 현재 시중에 출판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작품의 목록을 소개하여 연주 및 교습용 교재로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현재까지 현대 작곡가들의 피아노 작품은 지속적으로 작곡되고 있으나 극소수의 현대 작품만이 연주와 교습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이 타유페르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더 나아가 현대 피아노 실내악 문헌 발굴과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본론

1.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

1) 타유페르는 <첫 번째 습작>(Premières pœuvres, 1910)부터 <익살스러운 조곡>(Suite Burlesque, 1980)에 이르기까지 약 70년에 걸쳐 다수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을 남겼다. 커민스는 그의 논문에서 타유페르가 8여 곡의 피아노 듀엣과 24곡의 '두 대의 피아노와 네 손을 위한 작품'을 남겼다고 밝히고 있다[7]. 그러나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 수를 정확히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녀의 작곡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타유페르는 협주곡, 관현악곡, 발레곡, 영화 음악과 같은 대규모 장르의 창작에 있어 먼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완성한 후 다른 매체로 옮겨가는 방식을 취했다[8]. 예를 들어 <야외 놀이>(Jeux de plein air)는 1917년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먼저 탄생한 후 1924년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작품의 작곡 및 구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다음의 표 1은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문헌 목록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Musik Fabrik 출판사를 통해 시중에 출간된 16개만을 작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곡은 매우 쉬운 작품부터 숙련된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고난이도 작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연습용/교습용 작품부터 피아니스트들을 위한 연주회용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하겠다.

표 1.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 목록

Table 1. List of Tailleferre's Piano Chamber Works

작곡 연도	제목	구분	난이도
1910	Premières pousesses	Duet	하
1917	Jeux de plein air	2 Pianos 4 Hands	중상
1918	Images for Piano Four Hands	Duet	중
1920	Fandango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중
1923	Marchand d'oiseaux	Duet	중
1928	Deux Valses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중
1929	La Nouvelle Cythère	2 Pianos 4 Hands	중상
1942	Trois Études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상
1946	Intermezzo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중상
1948	Paris-Magie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상
1948	Parisian for Piano 4 Hands	Duet	중
1951	Suite Il était un petit navire	2 Pianos 4 Hands	중상
1953	Suite du Ballet Parisiana	Duet	중
1957	Toccata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중상
1974	Sonata pour deux pianos	2 Pianos 4 Hands	중상
1980	Suite Burlesque	Duet	하

2.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1974)의 분석

1)작품 개요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짧은 3개의 악장 - 제 1악장 Allegretto, 제2악장 Andantino, 제3악장 Allegro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유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 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작품에 속한다. 총 연주 시간은 약 7분(악장 순서대로 각각 2분, 3분 20초, 1분 40초) 가량 소요된다.

2) 작품 분석

(1) 제1악장

제1악장은 4/4박의 Allegretto 악장으로 8분 음표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무궁동 양식(perpetuum mobile style)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제1피아노와 제2피아노는 15-16, 33-36, 49-56, 102-105마디의 일부만을 제외하고 양손이 단선율을 연주하는 간결한 텍스처로 진행된다. 전체적인 곡의 형식은 3부 형식

(A-B-A'-코다)으로 다음은 제1악장의 전체 형식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제1악장의 전체 형식

Table 2. The Overall Form of The 1st Mvt.

부분	A		B	A'	코다
	I	II			
마디 (마디수)	1-18 (18)	19-36 (18)	37-60 (24)	61-96 (36)	97-105 (9)

제1악장은 단일 주제 악장으로서 고전 소나타 형식에서 나타나는 으뜸조와 딸림조/나란한조 사이의 조성적 규범 혹은 독일식 주제발전 기법(Thematic Development Technique)은 나타나지 않는다. A는 I과 II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I 주제부(1-18마디)는 19마디부터 제2주자에 의해 연주된다. 또한 주제부는 B와 A'의 시작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곡의 구조를 나누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제1악장의 주제선율의 시작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악보 1. 마디 1-4, 제1악장의 주제선율

Figure 1. mm. 1-4, Principle Theme of The 1st Mvt.

화성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1악장은 V-I의 전통화성 종지 용법(3-5, 36-37, 57-61, 96-97, 103-104마디)을 통해 조성이 명확하게 제시되며 페달 포인트(57-60, 82-85, 86-87, 97-101마디), 대위법적 모방(82-89마디) 등을 통해 신고전주의 음악의 어법을 드러내고 있다. 신고전주의 음악이란 일반적으로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풀치넬라>(Pulcinella, 1919-1920) - <방탕자의 편력>(Rake's Progress, 1947-1951)을 기점으로 엄격함과 객관적인 음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일컬으며 특히 바로크 혹은 그 이전 음악의 구조, 형식 및 어법을 통하여 17, 18세기 음악의 특질과 20세기 음악과의 접목하고자 시도하였다[9]. 그들이 사용하였던 구체적 음악 어법에는 오스티나토, 폴리리듬, 대위법 등이 있으며 풍

자나 패러디도 나타난다.

제1악장에서는 이러한 신고전주의 기법과 더불어 당시에 아방가르드 기법으로 여겨진 복합선법, 복합화성, 복합화음 등이 사용되었다. 다음의 악보 2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선법(A-도리안 선법과 C-에이올리안 선법)이 결합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악보 2. 마디 96-98, 복합선법의 예, 제1악장

Figure 2, mm. 96-98, The Example of Polymodality, The 1st Mvt.

타유페르의 음악에는 또한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이 풍부하게 드러난다[10].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는 화음의 병행 진행, 부가화음 첨가 혹은 불완전한 V7, V9, V11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인상주의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의 악보 3은 제1악장에 나타난 화음의 병행 진행과 부가화음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5도 화음의 연속적 병행 진행(102-104마디)과 V7에 2도와 4도가 첨가된 형태(104마디 4번째 박의 화음)의 부가화음이 나타난다. 이 부가화음은 3음과 5음이 생략된 V11 화음으로도 분석 가능하며 이러한 부가화음/불완전한 V 화음은 제 3악장에서도 나타난다(악보 11, 마디 68 참조).



악보 3. 마디 102-105, 제1악장, 병행5도와 부가화음

Figure 3. mm. 102-105, The 1st Mvt., The Parallel 5th and The Added Tone Chord

(2) 제2악장

제2악장은 호흡이 길고 섬세한 오른손 선율 아래, 정적이고 단순한 반주로 짜여진 호프모닉 텍스처가 주를 이루는데, 서정적이면서도 우수에 찬 선율은 타유페르의 탁월한 선율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타유페르는 자신의 기존 작품에 사용된 음악적 재료를 다른 작품 속

에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11], 제2악장의 도입부 선율도 그러한 타유페르의 기법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래의 악보는 각각 제2악장과 미완성 발레곡 <새로운 시테레섬>(La Nouvelle Cythère, 1929) 중 파반느(Pavane)와 제2악장의 도입부 선율로 우울한 음조, 3/4박자와 부점 리듬, b단조의 조성 등의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악보 4. 마디 1-4, <새로운 시테레섬>의 파반느

Figure 4. mm. 1-4, The Pavane of <La Nouvelle Cythère>



악보 5. 마디 1-4, 제2악장의 도입부 선율

Figure 5. mm. 1-4, The Introductory Melody of The 2nd Mvt.

제2악장은 1악장과 달리 코다가 생략된 A-B-A'의 3부 형식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제2악장의 전체 형식을 나타낸 도표이다.

표 3. 제2악장의 전체 형식

Table 3. The Overall Form of The 2nd Mvt.

부분	A		B	A'
	I	II		
마디 (마디수)	1-14 (14)	15-26 (12)	27-36 (10)	37-50 (14)

제2악장에서는 제1악장과 마찬가지로 오스티나토 베이스(1-4, 15-18, 27-31, 37-40마디의 왼손), 동형진행(27-32마디), 피카르디 3도(50마디), 기능 화성의 종지용법(6-7, 13-14, 33-37, 49-50마디) 등 신고전주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제2악장은 화성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 기능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악보는 제2악장에 등장하는 V-I 종지의 한 예로 V7 화음(33마디)은 36마디까

지 지속되다가 37마디에서 i/b단조로 해결되므로 명확한 중지감을 형성한다.



악보 6. 마디 33-40, V-I 종지의 예
 Figure 6. mm. 33-40, The Example of V-I Cadence

제2악장은 b 단조가 뚜렷하게 확립되나, 부가음 첨가를 통해 명확한 조성 감각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악보 6의 33-36마디는 그러한 예로, V7 화음에 2도나 6도의 부가음이 첨가되어 b 단조의 조성 감각이 흐려진다. 특히 2도 화음의 첨가는 그가 음악적 스승으로 존경했던 모리스 라벨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그너의 음악 외에 나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다리우스 미요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르 슈카>, <봄의 제전>의 4성부 편곡을 함께 연주하였으며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오르간 수업 때 스트라빈스키 양식으로 즉흥연주를 했고 그로 인해 유진 지고(Eugne Gigout) 선생의 수업으로부터 쫓겨났다...(중략)... 나는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A. Schönberg, 1839-1889), 그리고 라벨(M. Ravel, 1875-1937)의 음악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나는 포레(G. Faure, 1845-1924)가 이끄는 '독립음악협회'가 주최한 연주회를 통해 그 음악들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12].

타유페르는 1923년 말 혹은 1924년 초에 라벨과 직접

적인 친분을 맺게 되었으며 라벨은 타유페르에게 음악적 스승이 되었다[13]. 라벨 또한 타유페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었는데 그녀에 대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현대 음악가 중 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14]. 다음의 악보 7은 악곡에 나타나는 또다른 2도 화음 첨가의 예시로 이러한 2도 화음의 첨가는 2악장 뿐만 아니라악곡 전체에서 빈번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악보 7. 마디 9-12, 2도화음 첨가의 예
 Figure 7. mm. 9-12, The Example of added 2nd Note

프랑스 6인조가 1917년 결성된 이래로 그들이 프랑스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하나의 그룹으로 활동한 것에는 트럼피 없으나,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이들 여섯 명을 하나의 공통 분모로 엮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15]. 콕토와 사티는 인상주의의 모호함과 난해함을 공공연하게 경계했지만 이것에 대한 프랑스 6인조 멤버들의 대응 방식은 각자 달랐으며, 그러한 측면은 타유페르도 마찬가지였다. 타유페르는 사티와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 제시하는 새로운 음악의 방향성을 적극 수용하면서도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16]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이러한 그녀의 어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제3악장

제3악장은 1악장과 동일한 무궁동 양식으로, 16분 음표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곡 전체에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다. 짧은 음가가 시종일관 지속적으로 연주되는 이러한 무궁동 양식은 타유페르가 매우 즐겨하던 기법 중 하나로서[17],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Concerto pour Piano et Orchestre, 1924), 발레곡 <재장수>(Marchand d'osieaux, 1923)의 서곡, 피아노 실내악곡 <야외 놀이>의 제2악장 등 타유페르의 많은 악곡에서 사용되었다.

다음의 표는 제3악장의 전체 형식을 도표로 나타낸 것

으로 악장의 전체구성은 ABA'의 3부 형식이다.

표 4. 제3악장의 전체 형식

Table 4. The Overall Form of the 3rd Mvt.

부분	A		B	A'
	I	II		
마디 (마디 수)	1-22 (22)	23-35 (13)	36-68 (33)	69-95 (10)

제3악장은 1, 2악장과 마찬가지로 전통적 기능화성의 영역 내에서 동시에 복조성, 복합선법, 복합화성 등의 현대적 어법이 접목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동형진행(13-18, 48-51, 81-84마디), 오스티나토 베이스(1-8, 27-30, 36-39, 40-47, 53-59, 60-63, 77-80마디) 등의 신고전주의 양식도 함께 나타난다.

또한 제3악장에서는 스트라빈스키를 위시한 신고전주의 음악의 영향 뿐 아니라 스트라빈스키에 대한 직접적 오마주가 나타나기도 한다. 제3악장의 도입부 선율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중 '젊은 여인들의 춤'(Danses des Adolescentes)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악보 8, 9 참조)[18]. 다음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과 타유페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3악장 선율을 나타낸 것이다. 8분 음표, 16분 음표로 구성된 리듬과 전체적 선율의 윤곽, 5음음계(Pentatonic Scale)의 사용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악보 8. 마디 89-95, <봄의 제전>, '젊은 처녀들의 춤'
Figure 8. mm. 89-95, <Sacre du Printemps>, 'Danse of The Young Maidens'



악보 9. 마디 1-5, 제3악장의 제2피아노
Figure 9. mm. 1-5, The 2nd Piano Part of The 3rd Mvt.

다음의 악보 10은 제3악장에서 사용된 복합선법과 복합화성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마디 64-68에서 제1주자의 오른손에서는 E-믹소리디언이, 제2주자의 오른손

에서는 F#-에이올리언이 동시에 전개된다.



악보 10. 마디 1-5, 복합선법, 제3악장의 도입부
Figure 10. mm. 1-5, Polymodality, The Beginning of The 3rd Mvt.

다음의 악보 11은 제3악장에 나오는 복합조성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제1주자는 i/a단조의 3화음을, 제2주자는 I/F#장조의 3화음을 동시에 연주한다. 이러한 흰 건반-검은 건반을 사용한 복조성은 타유페르의 독주곡 <파스토랄>(Pastorale, 1919), 협주곡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발라드>(Ballade pour piano et orchestre, 1920-1922) 등을 포함한 많은 작품에서 등장하며, 이것을 스트라빈스키 발레곡 <페트르슈카>(Petrouchka, 1911)에 사용된 '페트르슈카 화음'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악보 11. 마디 60-68마디, 복조성과 복합화음의 예시
Figure 11. mm. 60-68, The Example of Polytonality and Polychord



악보 12.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 화음
Figure 12. Stravinsky, Petroushka Chord

흰 건반-검은 건반을 사용한 복조성은 어울림과 부딪힘을 통해 색채감 있는 음향을 형성한다. 타우페르의 다양한 음악적 자극들을 자신의 작품에 유연하게 녹여내었으며 이는 타우페르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프랑스 6인조의 여성 작곡가인 제르멘 타우페르의 피아노 실내악 작품의 목록을 소개하고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빠르게-느리게-빠르게의 3악장 구성을 바탕으로 가볍고 천진난만한 느낌의 1, 3악장, 그리고 서정적이면서도 우울한 음조가 가득한 2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악장은 약 2-3분 내외의 길이가 짧은 소품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프랑스 음악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벼우면서도 세련된 살롱 음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서 보이는 가식 없는 소박함과 간결함은 바그너주의의 심각함과 근엄함, 인상주의의 모호함을 탈피하고자 하였던 에릭 사티와 프랑스 6인조의 음악적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곡이라 하겠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또한 명확한 ABA의 3부 형식 및 오스티나토 베이스, 페달 포인트, 모방 기법, 동형 진행, 피카르디 3도 등 신고전주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야망가르드 기법이라고 평가받던 복합화음, 복합선법, 복합조성의 특징도 함께 보여준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서는 간결함과 명료성, 객관성을 추구했던 사티 및 신고전주의 어법과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티가 공공연하게 경계하고자 하였던 인상주의 음악의 영향도 강하게 표현된다. 타우페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서 병행 화음, 부가 화음의 첨가 등 인상주의 작곡가들의 화성 어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티와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고자 하였다. 타우페르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는 에릭 사티와 프랑스 6인조, 신고전주의 음악, 인상주의 음악 등 다양한 음악적 양식과 요소들이 다층적으로 녹여져 있다고 하겠다.

최근들어 진행된 타우페르의 작품에 대한 연구활동은 오페라, 발레곡, 영화음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독주곡, 실내악곡, 피아노 협주곡을 망라하고 피아노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타우페르의 피아노 작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에릭 사티를 위시한 프랑스 6인조의 음악,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음악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기존의 시각을 넘어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연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전통화성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가벼운 불협화성이 결합되어 있어 20세기 음악의 입문용 레퍼토리로 활용도가 높다. 또한 타우페르 특유의 세련된 화성과 선율, 천진난만한 분위기는 많은 연주자에게 매력적인 레퍼토리로 다가설 수 있다. 본 논문이 타우페르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이를 통해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레퍼토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D. Sunam, "Pedagogical Thoughts on Album des Six: a piano set by Les Six to Represent French Nationalism," D.M.A. diss., West Virginia University, pp. 13-14, 2019.
- [2] Sung Sun Lee, "Musical Style of Neoclassicism in Stravinsky's Concerto for Piano and Wind Instruments(1924)," *Music and Korea*, Vol. 31, p. 151, 2006.
- [3] M. R. Sitton, "The <Album des Six> and Pianism in The Works of Les Six, 1917-1925," D.M.A. dis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1991.
- [4] J. L. Gargiulo, "Germaine Tailleferre's Solo Piano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2001.
- [5] B. E. Scheidker, "Cultural Influences on the Piano Music of Les Six," D.M.A. diss., University of Texas, Austin, 1995.
- [6] J. M. Gelfand,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1999.

- [7] M. Cummins, "Use of Parody Techniques in Jacques Offenbach's Opérettes and Germaine Tailleferre's Du Style Galant au Style Méchant," D.M.A. diss., University of Kansas, p. 132, 2017.
- [8] J. M. Gelfand,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p. 102, 1999.
- [9] In Sun Shin, "The Twentieth Century Music," *Eumaksekye*, p. 28, 2007.
- [10] R. B. Bobbit, "The Harmonic Idiom in The Works of 'Les Six'," Ph. D. diss., Boston University, p. 483, 1963.
- [11] L. Gargiulo, "Germaine Tailleferre's Solo Piano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p. 10, 2001.
- [12] J. M. Gelfand,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p. 18, 1999.
- [13] R. Shapiro, "Germaine Tailleferre: A Bio-Bibliography," *Greenwood Press*, pp. 10-11, 1994.
- [14] J. M. Gelfand,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p. 95, 1999.
- [15] N. Perloff, "Art and The Everyday: Popular Entertainment and The Circle of Erik Satie," *Clarendon Press, Oxford*, pp. 5-6, 1991.
- [16] R. B. Bobbit, "The Harmonic Idiom in The Works of 'Les Six'," Ph. D. diss., Boston University, p. 483, 1963.
- [17] J. L. Gargiulo, "Germaine Tailleferre's Solo Piano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p. 26, 2001.
- [18] J. M. Gelfand, "Germaine Tailleferre (1892-1983): Piano and Chamber Works," D.M.A. diss., University of Cincinnati, p. 169, 1999.

[약보]

G. Tailleferre, <Sonate Pour Deux Pianos>, Musik Fabrik, Lagny Marne, France.

I. Stravinsky, <Sacre du Printemps>, C. G. Röder, Leipzig.

※ 이 논문은 2024년 명지대학교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